

Seroprevalence of Helicobacter pylori in rheumatic diseases

Young Ho Lee\*, Jong Dae Ji, Seong Jae Choi, Jong Guk Kim<sup>1</sup>, Gwan Gyu Song

Divisions of Rheumatology and Gastroenterology<sup>1</sup>,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Objective:** Helicobacter pylori(H. pylori) is one of the most common bacterial infections in human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H. pylori infection and rheumatic disea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ncidence of H. pylori inf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ter of IgG anti-H. pylori and clinical variables in rheumatic diseases. **Methods:** IgG anti-H. pylori was measured by ELISA in 43 serums from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 rheumatoid arthritis(RA, n=18), miscellaneous group(MI, n=13): systemic lupus erythematosus(n=5), spondylarthropathies(n=4), Behcet's disease, gout, scleroderma, polymyositis,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respectively one patient, n=5), and osteoarthritis(OA, n=12) as a control. Laboratory variables such as ESR, CRP, WBC, platelet count, and hemoglobin were measured at the same time. Results were correlated with clinical and laboratory variables.

**Results:** IgG anti-H. pylori was positive in 13(66.7%) of RA patients, 8(61.6%) of MI group, and 6(50%) of control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titers of IgG anti-H. pylori among RA patients, MI group, and control patients(16.5 ± 3.3 u/ml, 16.3 ± 4.2 u/ml, and 10.9 ± 3.5 u/ml, respectively)(p=0.50). IgG anti-H. pylori titers were correlated with ESR in 43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r=0.348, p=0.03), but not with age, disease duration, CRP, WBC, platelet count, hemoglobin and RF titer)(p > 0.05).

**Conclusion:** Our data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f IgG anti-H. pylori among rheumatic diseases, but IgG anti-H. pylori titers correlated with ES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H. pylori infection and rheumatic diseases.

건강 검진 환자에서 만성피로의 빈도와 임상양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지중대\* 최성재, 이영호, 송관규

**목적:** 피로는 일차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증상중 7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의 약 24%가 2주 이상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피로를 가지고 있다고한 성인의 약 59-64%에서 의학적 원인이 없으며 일차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중 약 24%에서 지속되는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들중 많은 환자들이 6개월이상의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의 빈도 및 임상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8년 3월 21일부터 1998년 6월 3일까지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 건강 검진 센터에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 530명중 만성피로증후군의 1994년 CDC 진단기준에 준하여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 증후군에 합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외의 의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진단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 530명중 10예(1.9%)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의 1994년 CDC 진단기준에 해당하였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기준에는 맞지않았지만 원인이 6개월이상의 만성피로를 보였던 경우는 113예(21.3%)였고 피로의 원인이 있었던 경우는 106예였다. 6개월미만의 피로를 보였던 경우는 187예였고 피로가 없었던 경우는 114예였다.

2)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중 남녀모두 5명이어서 남녀비는 1:1이었다.

3)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의 증상으로는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집중장애(90%), 인후통(20%), 암퇘기 동반된 경부 또는 액와부 임파절(30%), 근육통(80%), 다발성 관절통(20%), 두통(50%),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수면(100%),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과로후 전신 무력감(90%)을 보였다.

**결론:**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중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는 1.9%였고 남녀비는 1:1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미국의 0.1%에비해 매우 높은빈도로 이는 건강검진을 위해 3차병원에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에 영향을 받았을것으로 생각된다.